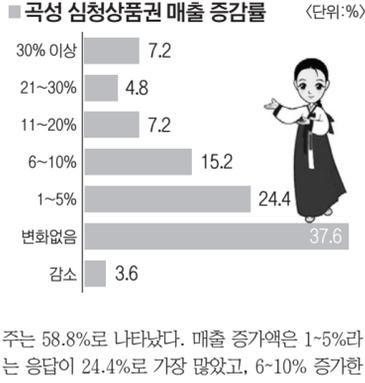


곡성 가맹점 80% 이상 “지역화폐 큰 도움”

■ 심청상품권 만족도 조사

“마트·슈퍼·편의점 사용” 83%
소상공인·골목상권 보호 도움

지역화폐의 효과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곡성군이 자체 발행한 심청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다. 27일 곡성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심청상품권 가맹점 250명과 이용주민 25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81.6%, 이용자들은 86%에 각각 달했다. “상품권으로 인해 매출이 올랐다”고 답한 가맹점



곳은 15.2%, 30% 이상 증가한 곳은 7.2%였다. 주민들의 월평균 상품권 사용액은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인 24.8%로 가장 많았고,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인 21.2%, 40만원 이상 사용하는 비율은 14.4%로 나타났다. 사용처는 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이 83.2%로 나타나, 심청 상품권이 주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선점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는데 일부 가맹점은 심청 상품권이 일반 마트보다 대형마트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주민들은 액면가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불편하다고 토론했다. 곡성군은 지난 2001년부터 20년 동안 지역화폐로 심청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모바일 상품권을 출시한 데 이어 올해는 코로나 19 상황에도 연중 할인 판매를 이어가 양적·질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역민과 소상공인들 모두 지역 상품권이 자금의 역유출 방지와 골목상권 보호라는 원래의 목적에 잘 부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다만 이번 조사는 심리적 만족도에 관한 질문이 다수 포함돼 지역 상품권의 실제 경제적 효과와 직접적으로 연결 짓기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재명 경기지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지역화폐 효과를 둘러싸고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여수 공공청사·전통시장 60곳 전화출입관리 서비스 도입

고흥군에 이어 여수시도 공공기관 등에 전화를 이용한 전화출입관리서비스를 도입했다. 여수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모든 공공청사 및 전통시장 60곳에 ‘전화 출입관리서비스’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전화 출입관리서비스’는 해당 장소 출입 시 안내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전화번호와 시간 등 통화기록이 시청 전산 서버에 남고 4주간 보관 후 자동으로 삭제되는 시스템이다. 여수시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와 수기대장을 병행 추진했으나, 전자출입명부 방식은 중·장년층과 2G휴대전화기 소유자는 사용하기 힘들었다. 수기대장은 개인정보 유출 및 허위 기재로 신뢰도가 떨어지고 타인이 사용한 필기구 접촉 기피 등 문제점이 있었다. 두 가지 방식의 약점을 보완한 ‘전화 출입관리서비스’는 휴대전화만 있으면 쉽게 이용이 가능해 정확성은 높이고 소요 시간은 단축돼 확진자 발생 시 명확한 동선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는 분청사 및 읍·면·동주민센터 등 공공청사 44곳과 여수수산시장·흥곡상가 등 전통시장 16곳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등의 입간판을 설치하고 출입자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여수=김정화 기자 chkim@kwangju.co.kr

광양시, 2022년까지 공공보건의료에 323억 투자

보건소 신축 등 5개 공모 선정 역대 최대 공공보건의료 확충

광양시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역대 최대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에 나선다. 27일 광양시에 따르면 2019년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광양시보건소 신축사업이 선정돼 132억 원을 투자한다. 또 2020년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43억 원을 확보했으며, 지난 11월 2021년 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이 최종 선정돼 2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기존의 보건의료시설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 기금사업인 2020년 치매기능보강사업 공모에 광양공립요양병원 증축비 69억 원, 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광양시보건소 외 5개소 사업비 51억 원을 확보했다. 광양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공보건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도 참여했다. 결과는 5개소가 선정돼 협소하고 분산된 각종 보건의료 공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됐다. 앞서 광양시보건소 건립사업은 현재 보건소 위치인 광양읍 인덕로 1100번지에 지상 3층(연면적 4617㎡)의 건축물을 2021년 4월 준공 목표로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단순하거나 일반진료 기능을 탈피한 수요자 중심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기대되는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는 성황·도이지구에 지상 3층(연면적 956㎡)으로 보건복지부 기본도면 심의를 마치고 인허가 절차와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2021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광양공립요양병원 증축공사는 지상 5층(연면적 2275㎡)의 규모로 2021년 10월에 완료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기본도면 심의와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96병상이 174병상으로 늘어나며 치매 전문 병동 설치로 양질의 치매 의료를 제공하게 된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전남도 내에서 가장 많은 5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노후시설



광양시보건소 조감도.

개선으로 시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주필 광양시보건소장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품격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광양시를 만들어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추석 연휴 회천수산물 위판장 운영 보성군, 10월 4일까지 특별관리



보성군은 추석 연휴 회천수산물 위판장을 운영하는 대신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 방역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피서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휴업하면서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보성회천수산물 위판장은 지난 15일부터 이용객 편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업을 재개했다. 보성군은 추석 연휴 위판장에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 철저한 방역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공무원으로 구성된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건물 입구는 주출입구 2곳만 개방하고, 실내 동시 수용인원이 적정 인원(50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발열체크 확인, 사회적 거리두기(2m), 이용객 방역용 기록 작성, 손목 식별띠 부착 등을 통해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수해복구 지원해 준 군부대 감사합니다”

유근기 곡성군수·김순호 구례군수 군부대 방문 감사패·감사장 전달

유근기 곡성군수와 김순호 구례군수가 수해복구를 지원해준 군부대를 잇따라 방문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23일부터 육군 제31보병사단, 제7공수특전여단, 제31보병사단 7391부대, 제50보병사단 기동대대 등을 방문해 수해복구 지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수해를 당한 곡성군에는 약 2주 동안 누적 인원 6791명의 장병이 수해복구를 도왔다. 곡성군은 수해 복구 지원 종료 후 부대에 복귀한 장병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감사패와 감사



유근기 곡성군수가 7공수 특전여단을 방문해 수해복구에 헌신한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곡성군 제공>

장을 제작해 각 군부대를 찾았다. 김순호 구례군수도 지난 25일 육군 제31보병사단과 93연대, 95연대를 방문해 수해복구 지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군수는 지난 달 25일 수해복구를 마치고 복귀하는 군 장병들을 환송하는데 이어 추석명절을 앞두고 군부대에 방문하여 감사패와 감사장, 격려금



김순호 구례군수가 지난 25일 육군 제31사단을 방문해 수해복구에 헌신한 장병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구례군 제공>

을 전달했다. 구례군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1807억원의 재산 피해를 입고 114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 절망에 빠졌을 때 국군 장병들이 가장 큰 도움과 희망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숨쉬기도 힘든 폭염과 여러 악조건 속에서 국군 장병들은 약 2주간 수해복구 작업을 추진했다. 소영민 31사단장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로 인해 어려움에 부딪친 국민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며 “우리 장병들도 이번 수해복구 작업에 임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매매 물건

- 건물** ▶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 건물** ▶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 의료시설** ▶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물건

- 공장**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토지 : 5388.4㎡(1630평) 건물 : 622.57㎡(188.3평)
감정가 : 5,106,825,160원
최저가 : 3,574,778,000원(70%) 유찰 1회
- 공장** ▶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토지 : 18875.5㎡(5709.8평) 건물 : 6386.82㎡(1932평)
감정가 : 5,994,297,460원
최저가 : 4,196,008,000원(70%) 유찰 1회
- 공장** ▶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토지 : 10323.1㎡(3122.7평) 건물 : 1155.94㎡(349.7평)
감정가 : 1,892,743,280원
최저가 : 1,324,920,000원(70%) 유찰 1회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